

일주문



용호복지관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혜총 스님은 200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개관 첫 번째 자원봉사자 수련대회를 5월 21일 남해 보리암에서 열었다.



경기대학교 이사 선임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5월 23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경기대학교 재단 관선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2006년 12월까지.



순국선열 호국영령 천도법회 서울 천태종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은 6월 5일 오전 11시 육보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한국URI 창립 6주년 기념식 한국 종교연합(URI) 대표 진월 스님은 5월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제1차 343일 영가천도 회향법회 대구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5월 31일 티베트 잠양 린포체를 초청해 제1차 343일 영가천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청소년 육성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장 정운 스님(보령 세원사 주지)은 문화관광부 주회 청소년 육성 유공자로 선정돼, 5월 21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와불정안 및 천일 묵언기도 입제 대구 사리사 주지 덕은 스님은 6월 5일 오전 10시 조계종 원로의원 원명 스님을 증명법사로 와불정안식 및 천일 묵언기도를 입제한다.(053)986-4240



14회 행원문화상 후보 접수 행원문화재단 주영은 이사장은 6월 30일까지 제14회 행원문화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분야는 학술 및 역경과 예술.(02)586-6521



노인인력개발 주제 심포지엄 금강대학교 김유형 총장은 5월 26일 종합강의동 사이버강의실에서 '충청남도 노인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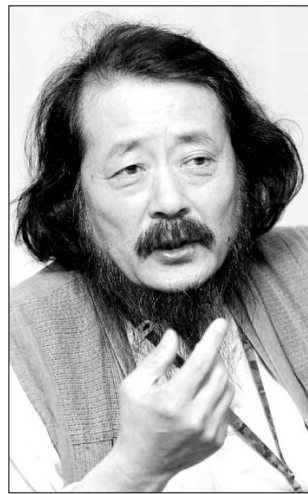


'해외 선불교 동향' 주제 세미나 선문화학회 김용정 회장은 5월 27일 서울 동국대 대강관 세미나실에서 '해외에서의 선불교 동향과 전망'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혜초 스님 열반지는 중국 오대산 금각사”

‘붓다뉴스’에 ‘역(逆) 왕오천축국전 별곡...’ 연재 김규현씨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저자인 혜초(慧超, 704~787) 스님의 열반지는 중국 오대산(五臺山) 금각사(金閣寺)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가이자 티베트불교 연구가인 김규현(58·사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김소장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5월 28일부터 연재할 <역(逆) 왕오천축국전 별곡-혜초 따라 5만리>란 기고문을 통해 “혜초 스님이 <천발대교왕경>을 번역, 서문을 쓰고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普提寺)는 금각사의 별칭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원보리사는 금각사의 별칭일 것” 주장 구도여행기 통해 ‘왕오천축국전’ 재조명

김소장은 이 글에서 “‘건원’이란 당나라 8대 황제인 숙종의 연호”라면서 “건원보리사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건원 황제의 명복을 비는 원찰이라는 상징적 보통명사”라고 덧붙였다. 김소장은 “황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원의 경우 정식 사원이름 대신 연호를 대신하기도 했다”면서 “숙종황제는 대중황제에 의한 금각사의 확장중전 이전에 이미 현판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현종 때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금각사와 인연이 깊다”고 풀이했다.

도, 최소한 금각사에 속해 있던 12개 보살원(院)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답사를 끝낸 김소장의 결론이다.

오는 9월 중국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서교류사와 혜초 연구의 권위자인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는 “금각사를 건원보리사 또는 그 보살원락의 하나로 보는 견해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정씨는 “건원보리사가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숙종황제의 원찰로서의 ‘상징적 보통명사’라는 김규현씨의 견해엔 일리가 있다”고 동조하면서 “혜초와 숙종황제의 관계 등 문제들에 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장이 이번에 붓다뉴스에 연재하는 <역(逆) 왕오천축국전 별곡>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던 실크로드 말고 티베트를 통해서 중국

과 인도도를 오가던 길이 약 50년간 존재했다는 점, 혜초 스님 이전에 네 명의 신라 스님이 티베트를 경유해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난 행적을 밝혀낸 것 등이 값진 열매다.

불교의 이상향으로 묘사되기도 한 티베트의 매력에 감동적인 구도기와 함께 생생한 여행 체험을 담은 그의 글과 사진에는 눈에 보이는 듯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1908년에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에 의해 중국 감숙성 돈황(敦煌)에서 발견되어 고대의 동서교류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는 <왕오천축국전>이 이번 연재를 통해 새롭게 조명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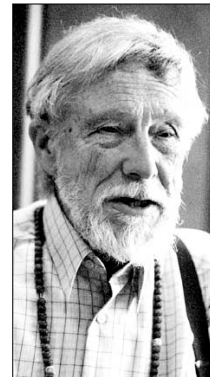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전통연구원을 거쳐 북경의 중앙미술대학, 라싸의 티베트 대학에서 수인목판화와 탕카(唐卡)를 연구한 김소장은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1993년부터 양쯔강, 황하, 겐지스강과 티베트 고원 등 12개국의 오지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홀로 누웠다. 월간 <불광> 등 언론을 통해 티베트불교의 찬란했던 문명의 파편들을 하나로 꿰어 세상에 알렸다.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티베트 역사산책> 등 역저를 잇달아 내놓았고, 붓다뉴스에 연재하는 <역(逆) 왕오천축국전 별곡>을 비롯해 티베트관련 시리즈 10권 출간에 매진하고 있다. 저술과 강연을 통해 티베트 문화를 알리고 있는 그는 <왕오천축국전>과 관련한 영상 다큐멘터리와 음악 제작이란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매일 아침 참선·반야심경 독송”

서울국제문학포럼 참가한美작가 게리 스나이더

비트 운동의 개시자이자 풀리처상 수상자, 불교 수행자, 생태 운동가... 단순히 ‘미국 불자 시인’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명성과 이력이 너무 화려한 게리 스나이더(75·Gary Snyder·사진). 그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만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깨어있는(mindfulness)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마음 자세로 사물을 관찰하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교수행이 당신의 문학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가? —나는 불교 수행자일 나이다 써는 <거북섬(1974)>으로 풀리처상을, <도끼자루(1983년)>로 ‘아메리칸 북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1960년대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하며 선불교에 심취한 이후 미국에 불교를 대중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평가 받는다.

생태시인으로 유명한 스나이더 씨는 <거북섬(1974)>으로 풀리처상을, <도끼자루(1983년)>로 ‘아메리칸 북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1960년대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하며 선불교에 심취한 이후 미국에 불교를 대중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평가 받는다.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한국불교의 체계적인 승단과 여성 불자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인사를 둘러본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새벽예불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겨 이에 대해 시를 쓰기도 했다.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는 매일 아침 참선과 함께 반야심경을 일본어, 영어로 독송한다. 하지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한국불교의 체계적인 승단과 여성 불자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인사를 둘러본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새벽예불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겨 이에 대해 시를 쓰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시집 하나를 막 펴냈고 20여 산문을 묶은 수필집도 올 가을에 출판한다. 또 생태운동의 일환으로 가까운 시기 한국을 다시 방문해 비무장지대를 찾아 그 곳의 환경과 회귀동물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미국의 불교문학은 어느 수준인가? —미국문학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현대 불교시 모음집(Contemporary Buddhist Poetry)>이 3권이 나왔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생태시 모음집>도 출판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시집 하나를 막 펴냈고 20여 산문을 묶은 수필집도 올 가을에 출판한다. 또 생태운동의 일환으로 가까운 시기 한국을 다시 방문해 비무장지대를 찾아 그 곳의 환경과 회귀동물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꿈이 있는 문예마당’ 시상식 거행



동화사와 대구불교방송 주최로 개최된 청소년 그림, 글짓기, 디지털 카메라 촬영대회인 ‘꿈이 있는 문예마당’의 시상식이 5월 21일 능인고등학교 정진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원형(덕원중 3년)군이 문광부장관상, 강병준(능인중 3년)군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국군장병 위문법회



200여 군 불자를 위한 위문법회가 5월 22일 강원도 76사단 예하 연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포교사단 군 4팀(팀장 장세동)과 서울 봉은사 자원봉사 모임 ‘작은 보시 큰 자비’ 팀이 마련한 이날 법회에서 장세동 포교사는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본원종 부산경남 증무원장 지우 스님 취임



본원종 부산경남 증무원장 지우 스님(부산 청련사 주지·사진)은 6월 3일 오전 11시 청련사 법당에서 증무원장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취임식은 대한불교 본원종 부총정 동강 스님, 부산경남 부총무원장 현담 스님, 해인 스님, 종회의장 우담 스님 등 100여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1971년 경보 스님을 은사로 득도의 지우 스님은 96년~2005년 본원종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6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체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행복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도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은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대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5년 6월 29일~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소 :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강료 : 24만원(당일 등록시 25만원)
6. 모집인원 : 39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5년 5월 30일~7월 1일까지
9. 문의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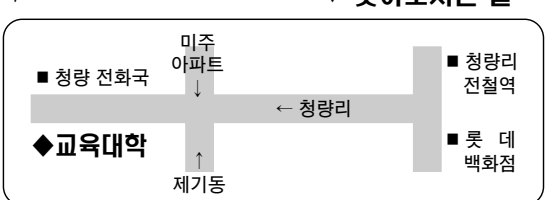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집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Rows include 초급과정, 중급과정, 전통의식과정, 요집·작법과정.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